

15일 Market Index			
코스피	3215.28	코스닥	812.88
	(+13.25)		(+13.51)
금리	2.463	환율	1378.50
	(-0.011)		(-2.70)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 온다... ‘각자도생’ 시대 도래

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❶ 0% 성장시대 눈앞

한국 성장률, 세계 평균 밑돌아
초고령사회 진입에 소비 위축
노인빈곤률 38%, OECD 최고
70대, 10대 인구 곧 추월 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후퇴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자식세대의 경제력이 부모세대에 경제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모와 고령자는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 늘어가는 대한민국...임박한 0%대 성장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경제성장률 평균은 연 2.3%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연 3.1%)에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간 재화와 인구 이동을 제한했던 ‘대봉쇄’가 해소되면서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에

돌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저성장 요인은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에 의존한 경제 구조, 금리 인하 지연 등 다수지만, 주요 요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꼽힌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저축 성향이 늘어난 반면, 은퇴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이며, 세계적으로는 22번째다. 2000년 31.8세였던 국민 중위연령은 46.1세까지 올랐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연 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 노인빈곤률이 높고, 인구 재생산률도 낮아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이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률(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38.2%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4.9%의 2.6배에 해당

한다. 같은 기간 합계출생률(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안부는 내년 6월 국내 70대 인구가 10대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올해부터 700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70대 진입이 시작되면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추이가 지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 ‘각자도생’의 시대...노후 대비해야

고령화와 저성장이 동반되면서, 노인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생산성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가 부양해야 할 노인은 많아져서다.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예상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원(가구주·배우자 생활비)이다. 전년보다 9만원 늘었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의 사전예약에 일제히 돌입한 15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시민들이 갤럭시 Z폴드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시스

공정위, 구글에 조건부 면죄부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수용

기존 대비 57% 저가·4년 유지
소비자들 150억 프로모션 혜택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사안은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없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형태의 ‘유튜브 프리미엄’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조사에 따른 것이다.

15일 공정위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최소 4년 간 유지·운영하기로 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 대비 약 57% 수준이다. 이는 유사 상품이 출

시된 미국, 영국 등 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구글은 또 국내 소비자들에게 연장 무료 체험(2개월, 총 75억원)과 재판매사 할인(총 75억원) 등 총 150억원 규모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

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된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신진 아티스트 48팀을 육성하고, 이 중 8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구글은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활동과 별도로 동의의결 목적에 따라 신설된다”고 공정위에 확약했다.

〈3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

LG, 세계 최고 수준 하이브리드 AI 공개

‘엑사원 4.0’, 지식·추론 통합형 전문성·성능 모두 글로벌 최상위

국내에서도 일반 인공지능(AI)과 추론 인공지능(AI)을 통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하이브리드 AI 모델이 등장했다.

LG AI연구원은 15일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 모델 ‘엑사원(EXAONE) 4.0’을 공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AI를 공개한 곳은 미국 클로드 개발사인 앤스로픽과 중국 쿼원 개발사인 알리바바 정도이며, 오픈AI도 GPT-5를 통합 모델인 하이브리드 AI로 개발 중이다.

LG AI연구원이 공개한 ‘엑사원 4.0’은 자연어 이해와 생성, 지식 기반의 빠른 답변에 강점이 있는 대규모언어 모델(LLM)과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추론 AI 모델을 하나로 결합한 모델이다. 엑사원은 전문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로, 한층 진화한 엑사원 4.0 모델은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엑사원 4.0’은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비교에서 MMLU-Redux/MMLU-Pro(AI의 지식 수준과 문제 해결 능력 평가) 92.3점/81.8점, LiveCodeBench v6(코딩 능력 평가) 66.7점, GPQA-Diamond(과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75.4점, AIM E 2025(수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85.3점을 기록하며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대표 오픈 웨이트 모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전문가 모델인 32B(매개변수 320억 개) 모델은 의사, 치과 의사, 한약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6가지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필기시험을 통과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증명했다.

온디바이스 모델인 1.2B(매개변수 12억 개) 모델은 ‘엑사원 3.5’ 2.4B 모델 대비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이면

서도 수학, 코딩, 과학 분야 등 전문 분야 평가 지표에서 미국 오픈AI의 ‘GPT-4o 미니’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 기업들이 별도의 GPU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API 형태로 엑사원 4.0을 자사 서비스에 손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프렌들리AI가 지원한다. 프렌들리AI의 추론 플랫폼은 응답 속도가 빠르고 트래픽에 따른 자동 확장을 제공해 기업들이 엑사원 4.0을 대규모 프로덕션 서비스에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은 LG AI연구원의 모델 개발 역량과 프렌들리AI의 추론 인프라가 만나, 기술적·비용적 장벽을 낮추고 확산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은 “엑사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프론티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 ▲이재명 대통령, 20개 APEC 회원국 정상에 초청 서한 보내 /사진 뉴시스
- ▲여야, 상법 ‘3%룰’ 보완해 합의 처리 추진…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관련 주한 일본방위주재관 초치
- ▲“노란봉투법만으로 노동문제 못 풀어… 초기업교섭 필요”

- ▲통일부 “북, 부품 밀수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제작 추정”
- ▲진보당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시장·구청장 사과해야”